

과학철학적 관점을 통한 경제학 분석 및 예측

「경제적 사고방식2」와 「과학과 철학」강의페어링

금융공학과 2학년 201221521 장지현, 이진희 교수님 지도

목 적

‘경제적 사고방식2’와 ‘과학과 철학’을 수강하고, 이 두 강의를 페어링하여 과학철학적 관점으로 주류경제학의 흐름을 해석해 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 사고방식’을 들을 때는 그저 어떤 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번 과학과 철학강의를 들으며 주류경제학 역시 과학과 비슷한 흐름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두 강의의 페어링을 통해 과학철학적 관점으로 주류경제학의 과거흐름을 해석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보려고 한다.

과학과 철학(이론)

귀납주의 :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이론을 이끌어낸다는 주장(경험적 사실에서 이론을 이끌어낸다)

반증주의 : 반증을 통해 과학 이론이 발전한다는 주장(칼 포퍼)

패러다임론 : 과학 이론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의 교체로 인해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토마스 쿤)

주류 경제학의 흐름

	대표인물	대표이론(주장)	한줄 요약
고전학파	애덤 스미스 리카도 세이	애덤스미스: 자유시장 질서를 강조하며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보이지 않는 손) 리카도: 비교우위 세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케인즈학파	케인즈	케인즈: 시장은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 있으며 더 이상 공급은 그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니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 확대 주장.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시카고학파	로버트 루카스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루카스: 정부의 정책은 실질 변수에는 영향이 없고, 오직 물가 상승만 초래한다. 밀턴 프리드먼: 통화량 증가가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실물변수를 변화시키진 못하며 인플레이션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은 통화량의 증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 놔두는 것이 좋다.
신케인즈학파	스티글리츠 폴 크루구먼	스티글리츠: 현실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 폴 크루구먼: 두 세대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서 수요 측면의 실패가 세계 변명에 뚜렷한 당면 제약이 되었다는 것이라 주장	개인이 합리적 일지라도, 수많은 시장 실패와 싸우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설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개선, 완전 고용에 이르게 도울 수 있다.



- ①아담스미스 (1723~1790)
- ②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
- ③밀턴 프리드먼(1912~2006)
- ④조지프 스티글리츠(1943~)

과학철학적 분석

귀납주의는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이에 따라 발전한 학파는 없어 보인다.

Popper의 반증주의를 통해서서는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의 흐름을 잘 설명할수있다. 주류 경제학의 흐름을 바라보면 모두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여 반증을 통해 다른 이론으로 발전되고 있다. 먼저 고전학파에서 케인즈학파로 발전은 1930년대 대공황, 초과 공급과 실업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여 케인즈학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 케인즈학파에서 시카고학파로의 발전은 1970년대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유효수요 증가 정책으로 실업률이 감소하여야 하지만 물가, 실업률이 둘 다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여 시카고 학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시카고학파의 이론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음을 알고, 신케인즈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마지막 쿤의 패러다임론적 관점으로 역시 주류 경제학의 흐름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류경제학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금 패러다임이 큰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주류 경제학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까지의 주류 경제학은 한 패러다임 안에서 이론을 조금씩 수정해가며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많은 기존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제대로 설명해줄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학은 신케인즈학파, 시카고학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론들과는 다른 진화경제학, 행동경제학과 같은 다른 관점의 이론들 역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쿤의 관점으로 바라 볼 때, 지금 패러다임은 변칙 사례들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있고 새로운 경쟁적인 패러다임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

과학철학적 관점으로 경제학을 분석했을 때, 귀납주의적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반증주의 역시도 앞서 설명한 과정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흐름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이론들은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지만 보통 앞서 설명한 큰 사건이 아니라면 경제이론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반증주의 역시도 경제학의 흐름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의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은 패러다임론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패러다임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패러다임은 많은 변칙사례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현재의 패러다임이 유지된다면 현재 패러다임 안에서 조금 수정된 이론들만 나올 것인데, 이는 또 다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상황, 앞으로의 상황을 잘 설명해줄 새로운 경쟁적인 패러다임이 나와 패러다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장하준, 김희정 옮김, 2014,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로버트 하일브로너, 김정수, 이현숙 옮김, 1996, 『고전으로 읽는 경제 사상』

